

공공기관 65곳 동반성장평가 '최우수'... 상생 노력 확산

중기부, 2025년 133곳 평가 결과 우수 이상 기관 전체 67.7% 차지 소진공·SR 등 15곳 첫 최우수 진입 상생협력기금 394억으로 확대 상생결제 금액 3510억까지 늘어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력원자력 등 65개 기관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동반성장 모범기관이 됐다.

하지만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독립기념관 등 11개 기관은 가장 낮은 '개선 필요' 등급을 받았다.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도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



한국중부발전 본사.

성장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동반성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평가는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 필요의 5개 등급으로 공표하고 있다.

2025년도 평가는 총 1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최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뉴스시스

우수 65개 기관(48.9%) ▲우수 25개 기관(18.8%) ▲양호 19개 기관(14.3%) ▲보통 13개 기관(9.8%) ▲개선 필요 11개 기관(8.2%)으로 각각 나타났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또한, 전년도 대비 52개 기관은 등급이 올라갔고, 13개 기관은 하락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에스알, 한

국산업인력공단 등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다.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유형별로는 ▲에스알(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한국중부발전(공기업 에너지 부문) ▲주택도시공사(공기업 산업진흥·서비스 부문) ▲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자금관리형 부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부문) ▲한국콘텐츠진흥원(기타공공기관 부문)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년도에 비해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에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환경 개선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은 107개에서 112개로 증가했고 2025년 출연금액 역시 394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 늘어났다.

또한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환경도 개선됐다. 공공기관의 거래기업(1차 협력사)이 하위 거래기

업에 상생결제를 시행한 기관 수는 89개에서 100개로 증가했고, 2025년 결제금액 역시 3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 늘었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도 115개에서 122개로 확대됐다.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공공부문에 점차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양호' 이하 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냉방비 부담 커지자 '창호 성능' 관심 집중

KCC 고단열·프리미엄 공략 강화 이사·리모델링 시즌 에너지 효율 주목 단열·기밀성이 실내 온도 유지 좌우

'내가 사는 집의 냉방 효율은 아떨까.' 봄철 이사, 리모델링 시즌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주거 공간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계속되는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더욱 에너지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건은 창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창호는 겨울철 난방효율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효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다.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고, 반대로 실내의 냉기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창호의 단열성과 기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창호는 시간이 지나며 틈새가 생기거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이사나 집수리 시기에



KCC 창호Window 5 제품 적용 이미지 컷.

점검하거나 교체를 하는 사례도 많다. 창호는 크게 유리와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에너지 성능은 유리의 사양뿐 아니라 프레임 설계와 창문 틈새를 얼마나 촘촘하게 막아주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유리와 프레임이 함께 외기 유입을 줄이고 실내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셈이다.

프레임 내부를 여러 칸으로 나눈 '다중챔버' 구조는 공기층을 형성해 외부

열기가 실내로 전달되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 창문이 닫힐 때 프레임과 창짝이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하는 밀착 설계가 적용되면, 틈새를 통한 공기 유입을 줄여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국내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도를 통해 단열성과 기밀성 등이 공식적으로 평가된다. 창의 구조와 유리 두께, 프레임 성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김승호 기자

만큼, 성능이 우수한 창호는 냉난방 에너지 절감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에는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호 교체를 주거 환경 개선의 한 축으로 보는 인식도 확대되고 있다.

KCC는 공식 '유통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해 창호 제품 정보와 상담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주거 공간 조건에 맞춘 고단열 솔루션으로 'Window 5 α'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확장 여부에 따라 단창 또는 이중창 구조(VB F145-VBF2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런 가운데 KCC는 프리미엄 창호 브랜드 '클렌체(Klenze)'를 통해 하이엔드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클렌체는 고급 주거공간에서 요구되는 성능과 디자인 요소를 함께 고려한 브랜드로 평가된다.



대한상의 회관 전경.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공대 인재 유치 지역기업 인력난 완화

하노이국립대 등 4개 대학과 MOU

대한상공회의소가 베트남 주요 공과 대학과 협력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인력 확보에 나선다. 현지 우수 인재를 국내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선발·교육한 뒤 실무역량 검증과 정착 지원까지 연계해 지역 기업의 인력 공백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하노이국립대, 하노이과학기술대, 하노이산업대, 우편통신기술대학교 등 베트남 주요 4개 대학과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상의가 산업통상부와 추진하는 '해외전문기술인력 유치사업'의 일환이다. 학사급 해외 기술인재를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연결해 산업현장의 구조적 인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 대학들은 베트남 내 공학·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곳이다. 하노이국립대는 베트남 대학 순위 1위, 하노이과학기술대는 3위, 하노이산업대는 공학 분야 2위에 올라와 있다.

/원관희 기자 wkh@

코웨이,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2종 선보

기존제품 대비 부피 최대 48% 줄여

코웨이가 슬림 사이즈에 청정 성능을 높인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시리즈에 신규 모델 2종(50㎡, 66㎡)을 추가 출시하며 중형 평형대 라인업을 강화했다.

26일 코웨이에 따르면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시리즈는 작은 크기에도 우수한 청정 효율과 미니멀 디자인을 갖춘 엔트리급 라인업이다. 코웨이는 기존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38㎡와 82㎡ 모델에 이어 중형대 청정 면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50㎡ 및 66㎡ 모델을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김승호 기자

신제품 50·66㎡는 슬림핏 사각형 패밀리를 반영한 미니멀 디자인과 색상으로 집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기존 동일 평형대 제품 대비 부피는 각각 약 48%, 35% 줄었고, 바닥 면적은 약 30% 줄었다.

색상은 취향과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샌드 베이지 ▲퓨어 화이트 ▲세이지 그린 ▲페블 그레이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2종은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필터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를 강력하게 케어한다.

여경협, 미래 여성 창업가 키운다

내달 17일까지 참가자 모집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창업아이디어 전문가 멘토링부터 지식재산권(IP) 출원까지 직접 경험할 미래 여성 창업가를 찾는다. 여경협은 내달 17일까지 전국 고교 및 대학(원) 재학 여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여학생에게 맞춤형 실전 창업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창업을 구체적인 진로 선택지로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지식재산권(IP) 코칭 등 단계별 집중 과정 프로그램을 거치며 실제 창업 단계를 경험하고 미래 여성경제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우수 창업아이디어 30건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의 창업장려금과 상패, 지식재산권(IP) 출원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누적 수료생 2942명을 배출하며 연평균 만족도 96%라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김승호 기자